"학생 보호" 해명에도 부실 대응 논란 계속

해당 초등교, 사건 직후 교내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뒤늦게 보호자에 연락… 목격 학생 심리 지원 빠져"
도교육청 "당시 대응·지원 과정 등 종합적으로 조사"

속보=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이 전무한(**본보 8월 12일자 4면 보도**)데다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도교육청이 뒤늦게 해당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 측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가 공식 문서로 당시 사안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알리고 보호자 안내,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상담 지원 등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발생 이후 3시간이 넘어서야 담임 교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두 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학생의 양팔을 잡아끌어 구조했고, 이를 지켜본 학생들도 다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살 시도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관리자와 교무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학교가 소집한 위기관리위에서는 해당 학생 외에 나머지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드러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던 지난 4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통해 해당 학생이 같은 학년 일부 학생들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이 드러났지만, 분리 조치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당시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행위를 목격한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회복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내에서 (가해·피해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이 자제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봉사자' 투입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해 개선책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자살 시도 학교 관계자 대상 경찰 수사 착수

피해학생 측, 6월 고소장 접수
"관련 기록 일체 부존재" 규탄

학교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시도한 제주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6월 서귀포경찰서에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등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학생 학부모 측은 교내 관계자들이 지난해 발생한 생명 위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일체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안 접수 보고'와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서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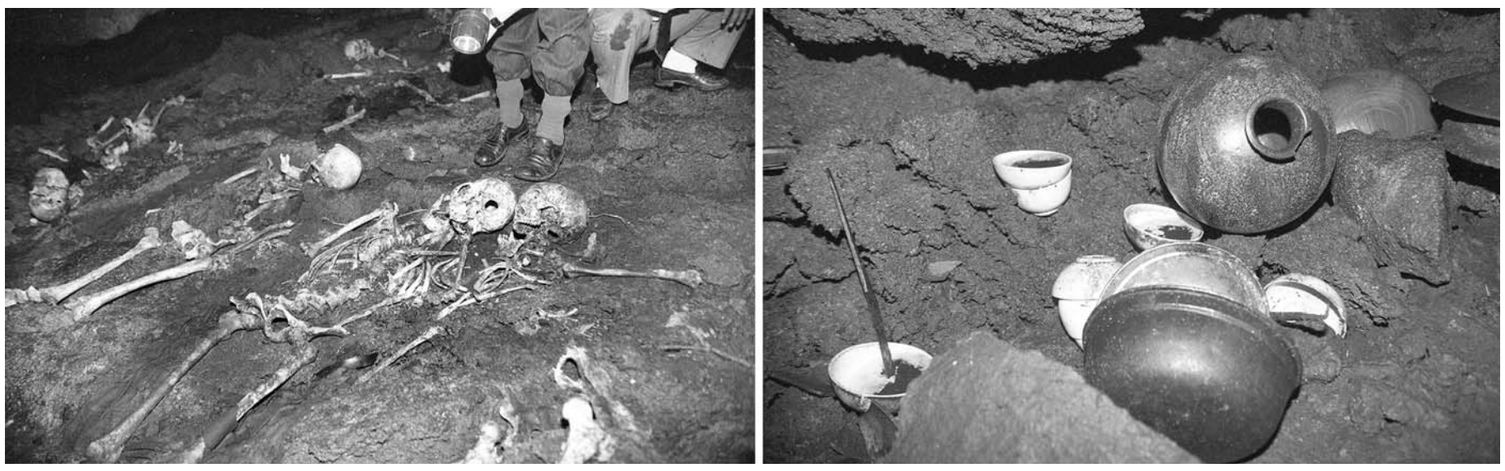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렌터카 훔쳐 달아난 40대 관광객 구속

제주에서 렌터카를 훔쳐 도주하고 문이 열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관광객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9시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렌터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서귀포시 중문동으로 이동해 또 다른 차량 2대에서 차키와 전자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절도 렌터카를 확인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양유리기자



지난 1991년 12월 22일 굴 내부에서 발견된 아이 1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유해(왼쪽). 오른쪽은 당시 이주민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용구들. 한라일보 DB

4·3 참상 간직 다랑쉬굴 국가문화유산으로

4·3 당시 피신한 주민 11명 토벌대에 집단 희생
유산청 "진상규명 기폭제 등 학술적 가치 충분"

제주 4·3당시 주민들이 피신했다 집단 희생된 다랑쉬굴이 국가문화유산이 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가유산청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랑쉬굴은 4·3광풍이 휘몰아치던 1948년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이 피신해 살다가 토벌대에 발각돼 집단 희생된 곳이다.

다랑쉬굴은 1991년 12월 22일 처음 발견됐으며, 굴 내부에서 아이 1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유해가 확인됐다.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발굴된지 45일만에 서둘러 화장돼 바다에 뿌려졌다. 4·3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보안당국이 유족들을 회유했기 때문으로, 당국은 굴 입구도 시멘트로 막아버렸다.

그러나 다랑쉬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은 오히려 4·3 진상 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기폭제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다랑쉬굴이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한 점,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점,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 4·3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에 대해 30일 동안 등록 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잇단 교통사고로 5명 부상… 음주운전도 적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대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20대 남성 A씨와 또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8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9시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C씨와 SUV 운전자 30대 여성 D씨, 2세 여아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유리기자

서귀포 숲길 걷던 60대 남성 심정지 사망

숲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숨졌다.

12일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숲길에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양유리기자